

맞벌이부부의 직업관련변수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Dual-Earner Couples' Job Related Variable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고정자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

Prof. : Jung Ja Ko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dual-earner couples' job related variable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For the data set 228 dual-earner couples living in Pusan, Korea were chose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M, SD,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and path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are higher for husbands than wives.

Second, for husbands,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were differed by husbands' housework participation, husbands'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Whereas for wives,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were differed by husbands' housework participation, husbands' job stressors, and wives' employment motivation .

Third, for husbands,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were differed by husbands' housework participation, husbands' support, job satisfaction, and husbands' job stressors. Whereas for wives,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were differed by income, husbands' support, job satisfaction, working hours, husbands' job stressors, and wives' employment motivation.

Fourth, for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and working hours have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quality of life. Besides, husbands' job stressors, and husbands' housework participation, and job satisfaction are indirectly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 본 논문은 1996년 동아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For wives, marital satisfaction, husbands' job stressors, wives' employment motivation and working hours have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quality of life. Besides, wives' employment motivation, and husbands' housework participation are indirectly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Among the variables marital satisfaction is the strongest predictor variable.

I. 서론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정의 기능이 점차 사회로 이양되어 가고 있으나 애정집단으로서의 가정의 기능은 여전히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은 부부가 하고 있으며, 평균수명 연장, 자녀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부부관계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부부관계의 행복도나 만족도는 부부 자신의 행복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의 인성형성과 자녀의 미래 결혼생활에 까지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원만한 부부관계와 건전한 가정형성을 위해서는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만족도 정도를 알아보고 나아가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삶의 질은 사람들 스스로 경험하는 개인의 만족감과 생활만족감이나 전반적인 복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삶의 질적 측면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결혼만족도는 삶의 질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원만한 부부관계와 부부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고,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자신의 발전과 자아실현을 추구하게 되어 맞벌이부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제활동에의 여성 참가율은 1980년 41.6%에서 1993년에 47.2%로 증가하였으며 그중 기혼여성의 비율은 40.0%에서 46.4%로 증가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4). 이와 같이 여성의 취업율이 증가하면서 부인의 취업이 부부의 역할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부인의 취업은 부부간의 외면적인 역할 뿐 아니라 내면적인 태도와 관계의 변화까지 가져와(최규련, 1993) 부부 및 전 가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맞벌이가족의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제 맞벌이가족은 소수 계층이 아니라 일상적인 가족의 생활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어 맞벌이부부의 삶의 질적 향상 문제는 모든 가정과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맞벌이부부의 생활에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관련변수들은 부부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이 취업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최규련, 1993; 김경신·김오남, 1996; 고정자·김갑숙, 1996)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주로 기혼여성들의 취업유무에 따른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주부는 취업과 다중역할수행으로 인하여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비취업주부에 비해 결혼만족이 감소된다고 하였다(Kingston & Nock, 1987; 임정빈·이중숙, 1989). 반면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에 비해 주변으로부터 다양한 자원을 얻게되며 성격 및 자아확대의 근원이 많아져 오히려 만족이 증가하여(이희정·이숙현, 1995)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결혼만족도 및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정자·김갑숙, 1997; Thomas, Albrecht & White, 1984). 그러나 최근에는 취업유무 자체보다는 취업동기, 취업에 대한 태도, 직업만족도, 남편의 지지여부 등 상황적 변인을 고려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변인들이 가족원의 만족도에 중요한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복지는 직업관련변수와 관련시켜 살펴보는 것

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수준이 직업관련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 이들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부부상당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고 맞벌이부부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직업관련변수와 결혼만족도

부부관계의 만족도는 부부 자신의 행복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 가족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결혼 및 가족학 연구분야에서 많이 다루어 온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결혼만족도란 각 배우자가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느끼는 만족한 감정의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만족도란 결혼의 성공도, 행복도, 적응도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고 있고, 연구자에 따라 연구범위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용어 및 척도, 연구범위들이 정립되지 않은 채 결혼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많이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이러한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결혼만족도의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김득성, 1986, 1989; 정현숙, 1997).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여성취업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이라는 연구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그리고 여성취업과 결혼만족도는 관련성이 없다는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정적이라는 관점에서 점차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취업유무 자체보다는 직업과 관련된 복합적인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직업관련변수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만족도는 결혼만족이나 생활만족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업에 만족하는 경우 결혼만족이나 생활만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선영, 1987; 이정숙, 1990; 김양희, 1992; 최규련, 1993; 이희정·이숙현, 1995; Pleck, 1985; Hirsch & Rapkin, 1986; Hanson & Sloane, 1992; Galambos & Silbereisen, 1989). 김경신·김오남(1996)의 연구에서도 남편·부인 모두 직장생활에 만족한 집단에서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김화자·윤종희, 1991). 그러나 Glenn & Weaver(1977)의 연구에서는 가족수입과 결혼만족도는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다.

남편의 가사참여도는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관계에 있으며(한경미, 1995; Berry & Williams, 1987), 김양희 외(1992), 김경신 외(1996)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사조력도가 많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mery & Tuer(1993)는 부부가 역할을 동등하게 분담할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편이 부인의 취업을 지지하는 경우 남편·부인 모두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며(김양희 외, 1992; 김경신 외, 1996), 남편의 지지가 있을 때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박미령, 1987; 도미향·최외선, 1990; 한경미, 1996; Thomas 외, 1984; Pleck, 1985). 전춘애·박성연(1996)은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 변수라고 하였다.

직업활동에 쓰여지는 시간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접촉을 제한하며, 역할기대와 수행간의 불일치에 의한 역할긴장을 초래하여 가족 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유영주·김경신·김순옥, 1996). 한경미(1995)는 직업노동시간보다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상대적으로 생활만족에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며 융통적인 근무시간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부인의 취업동기는 비경제적인 동기로 취업하는 경우가 경제적 동기로 취업한 경우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다(박미령, 1987; 임정빈 외, 1989; 도미향 외, 1990; 최규련, 199, 한경미, 1995).

2. 직업관련변수와 삶의 질

삶의 질 연구는 개인의 생활 경험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생활만족감이나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다. 최근 생활의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향상으로 관심이 이전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특히 삶의 질 수준은 국가의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학을 비롯하여 여러 학문영역에서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은 개인이 속하고 있는 문화, 시간, 연령,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삶의 질을 규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삶의 질은 객관적 접근법과 주관적 접근법의 두 모델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다(Olson & Barnes, 1982). 객관적인 척도는 평균수입, 교육연한 등 특별한 사회적 경제적 지표로 측정하는 방법이며, 주관적 접근법은 삶의 질 척도로 복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객관적, 주관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직업관련변수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은 삶의 질을 설명하는 아주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인지 하였다(Campbell et al., 1976; Andrews & Withey, 1976; 김경동 외, 1983; 이기영, 1984; 김종숙, 1989; 김재경·문숙재, 1992; 박미석, 1996). 고정자·김갑숙(1996)의 연구에서는 학력, 수입, 소득을 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로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Berry & Williams(1987)은 수입 그 자체가 삶의 질을 만족하게 측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고 하였다. Pittman & Lloyd(1988)는 가정수입은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재정적 스트레스가 더 뚜렷한 예측변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Marmen(1980)도 소득적정감이 삶의 질 만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이기영(1984)은 주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경로분석 한 결과 상대적

박탈감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다음은 소득으로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삶의 질 인지도가 높다고 하였다. Freedman(1978), Liu(1975)는 소득이 극도로 낮은 경우에는 소득의 영향력이 크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직업은 사회 경제상태의 주요한 구성요인으로 인간의 태도와 활동을 주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박미석, 1996).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직업지위 수준이 높을 때(김경동 외 1983; 박미석, 1996)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다. 이기영(1984)의 연구에서는 전문·관리직 및 전문기술직의 남편을 가진 주부가 생산 판매 서어비스직에 종사하는 남편을 가진 주부보다 삶의 질이 높다고 하였다.

남편의 가사참여도와 지지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고정자·김갑숙(1996)의 연구에서 남편의 가사 참여도는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희정·이숙현(1995)은 남편이 자녀양육을 더 많이 분담할수록 전반적 생활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고정자·김갑숙(1997)의 삶의 질에 대한 인과모형 분석에서 부인의 취업동기는 스트레스를 통하여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정(1985)은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한 경우 여성에게 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3.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결혼만족도가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Hirsch & Rapkin(1981)도 결혼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는 증가한다고 하여 Andrews & Withey(1976), Campbell et al.(1976), 이희정·이숙현(199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Berry & Williams(1987)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경로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결혼만족도가 삶의 질을 설명하는 영향력이

($\beta=.47$)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기영(1984)도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가 생활만족도에 가장 기여도가 크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부인의 취업동기, 직업만족도, 일일근무시간, 월평균소득, 직업스트레스와 여성의 취업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남편의 가사참여도와 남편의 지지도 등의 직업관련변인들이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수준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직업관련변인, 결혼만족도, 그리고 삶의 질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가, 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직업관련변인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셋째, 직업관련변인에 따라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넷째, 직업관련변인과 결혼만족도가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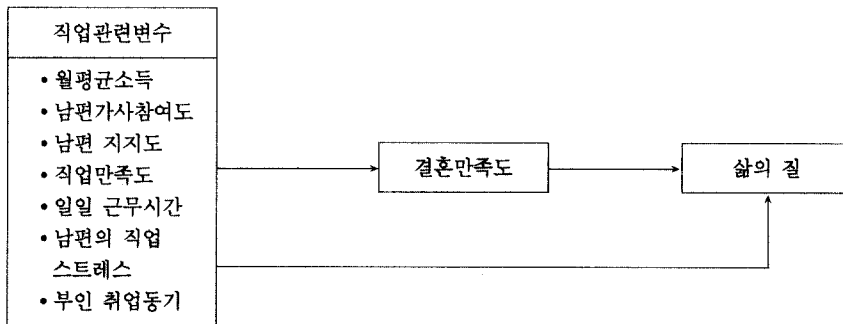
측정도구 작성 후 1996년 7월 중 고생을 둔 부부 50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하였다. 본조사는 1996년 11-12월에 걸쳐 부산시내 거주하는 6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은 초·중·고등학교 각 2개교 학생들을 통하여 부모님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300부를 배부하였고, 그의 훈련받은 대학생이 가정을 방문하여 설명하고 다음날 회수하는 방법으로 300부를 배부하였다. 그중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것을 제외시키고 468쌍 중 맞벌이부부 228쌍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직업관련변인

직업관련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월평균 소득, 남편의 가사참여도, 부인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 직업만족도, 일일근무시간, 부인 취업동기, 남편의 직업스트레스 등을 알아보았다. 남편의 직업스트레스는 Rook & Dooley(1991)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변 인 | 구 분 | 빈도 | 백분율 | 변 인 | 구 분 | 빈도 | 백분율 |
|------------------------|-----------|-----|------|------------------------|---------|-----|------|
| 남편연령 | 35세 이하 | 19 | 8.3 | 부인연령 | 35세 이하 | 47 | 20.7 |
| | 36-40세 | 51 | 22.4 | | 36-40세 | 69 | 30.4 |
| | 41-45세 | 63 | 27.6 | | 41-45세 | 61 | 26.9 |
| | 46-50세 | 59 | 25.9 | | 46-50세 | 36 | 15.9 |
| | 51세 이상 | 36 | 15.8 | | 51세 이상 | 14 | 6.2 |
| 남편학력 | 중학교 이하 | 34 | 14.9 | 부인학력 | 중학교 이하 | 64 | 28.1 |
| | 고등학교 | 99 | 43.4 | | 고등학교 | 97 | 42.5 |
| | 전문대학 | 13 | 5.7 | | 전문대학 | 15 | 6.6 |
| | 대학교 이상 | 82 | 36.0 | | 대학교 이상 | 52 | 22.8 |
| 남편종교 | 기독교 | 23 | 10.1 | 부인종교 | 기독교 | 31 | 13.7 |
| | 천주교 | 19 | 8.3 | | 천주교 | 23 | 10.1 |
| | 불교 | 107 | 46.9 | | 불교 | 124 | 54.6 |
| | 무교 | 79 | 34.6 | | 무교 | 48 | 21.1 |
| 월평균소득 | 150만원 미만 | 34 | 14.9 | 결혼지속연수 | 5년 이하 | 25 | 11.0 |
| | 150-200만원 | 65 | 28.5 | | 6-10년 | 28 | 12.3 |
| | 200-250만원 | 45 | 20.2 | | 11-15년 | 46 | 20.3 |
| | 250-300만원 | 26 | 11.4 | | 16-20년 | 73 | 32.2 |
| | 300-350만원 | 28 | 12.3 | | 21-25년 | 39 | 17.2 |
| | 350만원 이상 | 29 | 12.7 | | 26년 이상 | 16 | 7.0 |
| 자녀수 | 1명 이하 | 45 | 19.7 | 부인 취업동기 | 경제적인 이유 | 165 | 72.7 |
| | 2명 | 115 | 50.4 | | 자아발전 | 62 | 27.3 |
| | 3명 이상 | 68 | 29.8 | | | | |
| 남편 가사참여도 ¹⁾ | 하지않음 | 19 | 8.3 | 남편 가사참여도 ²⁾ | 하지않음 | 23 | 10.1 |
| | 안하는 편 | 48 | 21.1 | | 안하는 편 | 51 | 22.5 |
| | 조금 함 | 119 | 52.2 | | 조금 함 | 116 | 51.1 |
| | 많이 함 | 42 | 18.4 | | 많이 함 | 37 | 16.3 |
| 남편 지지도 ¹⁾ | 반대함 | 24 | 10.5 | 남편 지지도 ²⁾ | 반대함 | 21 | 9.3 |
| | 목인함 | 35 | 15.4 | | 목인함 | 28 | 12.3 |
| | 조금 협조 | 93 | 40.8 | | 조금 협조 | 90 | 39.6 |
| | 많이 협조 | 76 | 33.3 | | 많이 협조 | 88 | 38.8 |
| 남편 직업만족도 | 아주 불만족 | 2 | 0.9 | 부인 직업만족도 | 아주 불만족 | 10 | 4.4 |
| | 대체로 불만족 | 57 | 25.0 | | 대체로 불만족 | 40 | 17.6 |
| | 대체로 만족 | 159 | 69.7 | | 대체로 만족 | 153 | 67.4 |
| | 아주 만족 | 10 | 4.4 | | 아주 만족 | 24 | 10.6 |

1) 남편이 인지한 남편가사참여도, 남편지지도

2) 부인이 인지한 남편가사참여도, 남편지지도

남편이 직업생활에서 경험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즉 직장에서 해고, 은퇴, 일시적 휴직 등의 직업상실, 사업실패, 직장상황 악화, 직장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7문항으로 구성하여 경험여부를 알아보았다.

2)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 척도는 Olson 등(1982)의 ENRICH (Enriching &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의 하위영역인 결혼만족도 척도를 수정하여 11문항으로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아주 불만족에 1점, 아주

만족에 5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분석 결과 전체에 대한 문항별 상관관계가 모두 $r=.50$ 이상으로 나타나 11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남편, 아내 모두 cronbach $\alpha=.88$ 로 높게 나타났다.

3) 삶의 질

Olson & Barnes(1982)의 삶의 질 척도를 수정하여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아주 불만족에 1점, 아주 만족에 5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삶의 질 하위영역은 가족, 친구 친척, 건강, 가정생활, 교육, 시간, 종교, 매스컴, 경제, 지역사회, 직업생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분석 결과 $r=.3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남편은 .94, 아내는 .93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자료의 분석은 SPSS PC program에 의해 수행되었다.

측정도구 작성을 위하여 문항분석과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를 구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성별 비교를 위하여 t-test를 하였다. 둘째,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하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test를 하였다. 그리고 세번째 인과모형 검증을 위해서는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수준

1) 결혼만족도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고 남편

<표 2> 결혼만족도 수준

| 영역(문항) | 남편 M(5점만점) | 아내 M(5점만점) | t 값 |
|-----------|---------------|---------------|-------|
| 결혼만족도(11) | 37.56 (3.41) | 36.15 (3.29) | 2.13* |

* $P<.05$

과 부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하여 t-test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남편(5점 만점에 3.41)과 부인(5점 만점에 3.29)의 결혼만족도 수준은 중간점 보다 약간 높았다. 이는 결혼만족도 수준이 중 정도로 나타난 김양희 외(1992)와 한경미(199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최규련(1995)의 연구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성별로 보면 남편과 부인 사이에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편이 부인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최규련, 1987; 임정빈 외, 1989; 김양희 외, 1992; 최규련, 1993, 1995; Vannoy & Philliber, 1992) 일치하였다. 그러나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정신·김오남(1996)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2) 삶의 질

맞벌이부부의 삶의 질 인지수준을 알아보고 남편과 부부 사이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한 결과<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부부의 삶의 질은 중간 수준이었다(남편 $M=3.08$, 부인 $M=3.02$). 이는 김경동 외(1983)의 연구(11점 척도 중 4.8)보다는 높았으며, 박미금(1994)의 연구(남편 $M=3.36$, 부인 $M=3.19$)보다는 조금 낮았다.

성별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박미석(199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보다 높게 나타난 고보선·임정빈(1992), 박미금(1994), Pittman & Lyold(1988)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으며, 오히려 부인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Hayes & Stinnett(1971)의 연구와도 차이를 보였다.

〈표 3〉 부부의 삶의 질 수준

| 영역 | 남편 M(5점만점) | 아내 M(5점만점) | t 값 |
|----------|---------------|---------------|--------|
| 가족(4) | 15.56(3.89) | 15.18(3.80) | 1.33 |
| 친척 친구(2) | 7.17(3.59) | 6.92(3.46) | 1.86 |
| 건강(2) | 6.47(3.24) | 6.39(3.20) | .51 |
| 가정생활(5) | 15.99(3.20) | 15.17(3.03) | 2.41* |
| 교육(2) | 5.98(2.99) | 5.65(2.83) | 2.39* |
| 시간(5) | 14.66(2.93) | 13.69(2.74) | 2.92** |
| 종교(2) | 6.41(3.21) | 6.24(3.12) | 1.34 |
| 직업(2) | 6.32(3.16) | 6.28(3.14) | .23 |
| 매스컴(4) | 11.18(2.80) | 11.43(2.86) | -1.11 |
| 경제(6) | 17.11(2.85) | 17.42(2.90) | -.70 |
| 지역사회(6) | 16.48(2.75) | 16.40(2.73) | .22 |
| 전체(40) | 123.13(3.08) | 120.76(3.02) | 1.27 |

* P<.05 ** P<.01

하위영역에서는 가족영역(M=3.89)에 대한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친척·친구영역(M=3.59)이었다. 한편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낮은 영역은 지역사회영역(M=2.75)이었고, 다음은 매스컴(M=2.80), 경제(M=2.85), 시간영역(M=2.93)이 낮았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사회실정이 잘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하위영역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가정생활(P<.05), 교육(P<.05), 시간영역(P<.01)에서 차이를 보여 남편이 부인보다 가정생활, 교육, 시간영역에서 더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고보선·임정빈(1992)의 연구에서는 남편이 식생활, 건강, 교육영역에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bara & Josephine (1992)의 연구에서 개인시간영역에서 남성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것은 부인의 경우 가정과 직업역할의 다중역할로 인하여 시간적 제약이 많으며 그에 따라 가정내 역할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직업관련변수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

직업관련변수에 따른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및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test를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월평균소득 변인에 따른 차이는 남편 부인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김화자·윤종희(1991)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남편 가사참여도는 남편의 경우는 P<.001 수준에서, 부인의 경우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남편은 가사참여를 하지 않는 집단과 참여를 하는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인의 경우는 가사참여를 하지 않는 편인 집단과 많이 하는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나 가사노동의 역할을 분담할 때 남편·부인 모두 결혼만족도가 높다. 이는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부인·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한경미(1995), Berry & Williams(1987)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남편이 가사에 참여할 때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김양희 외(1992), 김경신·김오남(1996)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와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남편의 경우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묵인하는 집단과 많이 협조하는 집단 사이에서 차이를 보여 남편이 부인의 취업에 협조적일 때 오히려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높았다. 이것은 남편의 가사참여도 변인과 더불어 남편이 결혼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가사역할을 분담하며 부인에게 협조적인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차후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관계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부인의 경우는 남편의 지지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이 부인의 취업을 지지할 경우 남편·부인 모두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한 김양희 외(1992), 김경신·김오남(1996)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남편의 지지와 협조가 있을 때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박미령, 1987; 도미향 외, 1990; 한경미, 1995; 전춘애 외, 1996; Thomas 외, 1984; Pleck, 1985)과는 차이를 보였다.

직업만족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남편의 경우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표 4〉 직업관련변수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

| 변인 | 구분 | 남편 | | 부인 | |
|-----------|-----------|--------------|-----------|--------------|-----------|
| | | M (SD) | F scheffe | M(SD) | F scheffe |
| 월 평균소득 | 150만원 미만 | 38,26 (7,47) | .87 | 35,65 (7,54) | 1,01 |
| | 150-200만원 | 36,46 (6,56) | | 35,34 (7,05) | |
| | 200-250만원 | 37,13 (7,52) | | 36,02 (8,24) | |
| | 250-300만원 | 36,81 (5,32) | | 36,00 (5,11) | |
| | 300-350만원 | 38,46 (5,71) | | 37,00 (6,95) | |
| | 350만원 이상 | 39,07 (7,88) | | 38,72 (7,85) | |
| 남편가사 참여도 | 하지 않음 | 32,32 (6,46) | 6,48*** a | 34,35 (7,46) | 5,30** a |
| | 안하는 편 | 36,10 (6,97) | | 33,75 (7,10) | |
| | 조금 함 | 38,07 (6,78) | | 36,70 (7,07) | |
| | 많이 함 | 39,74 (5,80) | | 39,38 (6,59) | |
| 남편의 지지도 | 반대함 | 35,87 (8,44) | 4,07** a | 35,00 (7,90) | 2,02 |
| | 묵인함 | 35,20 (7,02) | | 34,18 (5,86) | |
| | 조금 협조 | 37,14 (6,32) | | 35,88 (7,45) | |
| | 많이 협조 | 39,46 (6,48) | | 37,55 (7,13) | |
| 직업 만족도 | 이주 불만족 | 39,00 (1,41) | 8,06*** a | 35,20(10,36) | 2,57 |
| | 대체로 불만족 | 33,86 (7,20) | | 33,83 (6,74) | |
| | 대체로 만족 | 38,56 (6,14) | | 36,56 (6,89) | |
| | 이주 만족 | 40,70 (9,37) | | 38,63 (8,05) | |
| 일일 근무시간 | 8시간 이하 | 37,54 (7,23) | .74 | 37,06 (7,49) | 1,40 |
| | 9-10시간 | 37,99 (6,40) | | 35,30 (6,55) | |
| | 11시간 이상 | 36,62 (7,11) | | 35,75 (7,54) | |
| 남편직업 스트레스 | 낮은집단 | 38,41 (6,90) | 1,74 | 37,68 (7,35) | 2,83** |
| | 높은집단 | 36,81 (6,78) | | 34,99 (6,94) | |
| 부인 취업동기 | 경제적인 이유 | | | 35,03 (6,87) | -4,23*** |
| | 자아발전 | | | 39,44 (7,30) | |

* P<.05 ** P<.01 *** P<.001

a, b : 같은 문자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검증 결과 직업에 불만족한 집단과 만족한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난 반면, 부인의 경우는 직업에 만족한 집단에서 결혼만족도 점수가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남편·부인 모두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김경신 외(1996)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근무시간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남편·부인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상대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한경미, 1995)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남편의 직업 스트레스는 남편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오히려 부인의 경우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직장생활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경험을 많이 한 남편의 부인이 결혼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이로서 남편의 직업스트레스가 부인에게 전이되어 오히려 부인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인의 취업동기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비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한 여성이 결혼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박미영, 1987; 임정빈 외, 1989; 도미향 외, 1990; 한경미, 1995)와 일치된 결과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남편의 경우는 남편의 가사참여도,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 남편의 직업

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부인의 경우는 남편가사참여도, 남편의 직업스트레스, 부인의 취업동기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차이가 있었다.

3. 직업관련변수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

직업관련변수에 따른 맞벌이부부의 삶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및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test를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월평균소득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은 남편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부인의 경우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150

만원 미만 집단과 250-300만원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 월소득이 많을 때 부인들은 삶의 질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김경동 외, 1984; 이기영, 1984; 노유자, 1988; 김재경·문숙재, 1992; 박미석, 1996)와 일치한다. 그러나 하재구(1986)는 높은 수입이 반드시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Freedman (1978), Liu(1975)도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소득의 영향력이 크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남편의 가사참여도는 남편의 경우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남편이 가사참여를 하지 않는 집단과 많이 하는 집단간에

<표 5> 직업관련변수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의 차이

| 변인 | 구분 | 남편 | | 부인 | |
|-----------|-----------------|---------------|-----------|--------------------------------|-----------|
| | | M (SD) | F scheffe | M(SD) | F scheffe |
| 월 평균소득 | 150만원 미만 | 121.83(23.42) | 2.09 | 115.65(18.54) | 3.13** |
| | 150-200만원 | 121.46(17.93) | | 118.78(15.75) | |
| | 200-250만원 | 118.49(14.33) | | 119.43(17.09) | |
| | 250-300만원 | 120.54(22.44) | | 119.00(14.52) | |
| | 300-350만원 | 125.63(21.50) | | 125.85(23.89) | |
| | 350만원 이상 | 132.93(20.29) | | 131.75(22.37) | |
| 남편가사 참여도 | 하지 않음 | 111.06(21.86) | 3.04* | 120.70(18.67) | .91 |
| | 안하는 편 | 121.09(17.27) | | 118.86(17.28) | |
| | 조금 함 | 124.16(20.93) | | 120.63(18.13) | |
| | 많이 함 | 127.05(16.41) | | 125.47(20.19) | |
| 남편의 지지도 | 반대함 | 118.36(21.79) | 6.34*** | 121.14(20.33) | 3.05* |
| | 묵인함 | 114.28(22.80) | | 114.04(14.20) | |
| | 조금 협조 | 121.02(16.06) | | 119.19(16.41) | |
| | 많이 협조 | 130.23(19.56) | | 125.27(21.30) | |
| 직업 만족도 | 아주 불만족 | 113.00(2.83) | 16.42*** | 124.10(24.76) | 5.57** |
| | 대체로 불만족 | 108.04(17.05) | | 112.28(14.80) | |
| | 대체로 만족 | 127.95(17.88) | | 121.55(17.81) | |
| | 아주 만족 | 129.89(23.60) | | 131.59(23.05) | |
| 일일근무시간 | 8시간 이하 | 123.76(20.35) | 2.29 | 125.71(19.98) | 6.55** |
| | 9-10시간 | 125.30(16.74) | | 117.42(15.03) | |
| | 11시간 이상 | 118.18(22.69) | | 115.98(18.68) | |
| 남편직업 스트레스 | 낮은 집단 | 128.73(19.81) | 3.55*** | 125.22(20.80) | 2.99** |
| | 높은 집단 | 118.98(18.90) | | 117.56(16.30) | |
| 부인 취업동기 | 경제적인 이유 자아발전 | | | 116.96(16.15) 132.29(21.30) | -5.02*** |

* $P<.05$ ** $P<.01$ *** $P<.001$

a, b : 같은 문자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차이가 나타나 가사분담을 많이 하는 남편이 오히려 삶의 질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부인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이희정·이숙현(1995)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높을 때 부인들의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부인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 변인에 따라서는 남편($P<.001$), 부인($P<.05$)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편의 격려 및 협조가 많을 때 삶의 질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직업만족도 변인은 남편($P<.001$), 부인($P<.01$)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직업에 불만족한 집단과 만족한 집단사이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Andrews & Withey(1976), Campbell et al.(1976) 연구와 일치된다.

근무시간에 따른 삶의 질 수준 차이는 남편의 경우 차이가 없었으나, 부인의 경우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근무시간이 적을 때 삶의 질 수준이 높았다. 이는 취업주부의 경우 여가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직장과 가정의 다중역할로 인하여 시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주부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융통성 있는 시간근무제나 재택근무제 등의 실시가 요구된다.

남편의 직업스트레스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은 남편($P<.001$)과 부인($P<.01$)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남편·부인 모두 삶의 질을 높이 인식하고 있다.

부인의 취업동기 변인은 $P<.001$ 수준에서 삶의 질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자아발전을 위하여 취업을 한 경우 삶의 질 수준이 높았다.

이상에서와 같이 남편의 경우는 남편의 가사참여도,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 직업 만족도, 남편 직업스트레스 변인에 따라 삶의 질은 차이를 보였다. 한편 부인의 경우는 월소득, 남편의 지지도, 직업만족도, 남편의 직업스트레스, 부인의 취업동기에 따라 삶의 질 수준은 차이가 있었다.

4. 인과모형 검증

직업관련변수와 결혼만족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 월소득, 직업만족도, 일일근무시간, 남편가사참여도, 남편의 아내 취업 지지도, 남편의 직업 스트레스, 부인 취업동기를 독립변수로 하고, 결혼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인과모형을 구성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05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만을 인과모형에 도식화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β 계수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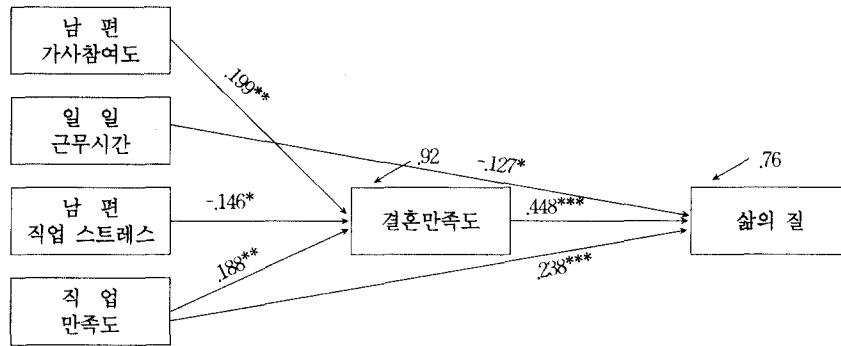
변수중 명목변수로 된 부인취업동기는 가변수로 처리하였다(경제적 이유=0, 자아발전=1). 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수들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r=.55$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배제되었다. 또한 오차항간의 독립성 검증을 위하여 Durbin-Watson test를 한 결과 그 값이 1.83에서 2.06 사이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분석자료는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과 <그림 2>에서와 같이 남편의 경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가사참여도($\beta=.199$), 남편의 직업스트레스($\beta=-.146$), 직업만족

<표 6> 결혼만족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변인 | 남편 | | 부인 | |
|----------------|----------------|--------------|----------------|--------------|
| | 결혼 만족도 β | 삶의 질 β | 결혼 만족도 β | 삶의 질 β |
| 남편의 가사참여도 | .199** | -.019 | .225** | -.083 |
| 남편의 지지도 | .064 | .056 | -.027 | .048 |
| 월평균소득 | -.003 | .084 | .064 | .077 |
| 일일근무시간 | -.027 | -.127* | .003 | -.123* |
| 직업만족도 | .188** | .238*** | .092 | .056 |
| 남편 직업스트레스 | -.146* | -.109 | -.106 | -.118* |
| 부인취업동기 | | | .240*** | .138** |
| 결혼만족도 | | .448*** | | .603*** |
| 회귀상수 | 30.371 | 69.013 | 26.692 | 70.082 |
| R ² | .153 | .418 | .149 | .522 |
| F 값 | 6.655 | 20.274 | 5.495 | 28.709 |
| D-W계수 | 1.993 | 2.06 | 1.910 | 1.834 |

* $P<.05$ ** $P<.01$ *** $P<.001$



〈그림 2〉 남편의 인과모형

도($\beta=.188$)변인이었다. 즉 남편의 가사조력도와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스트레스는 적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15.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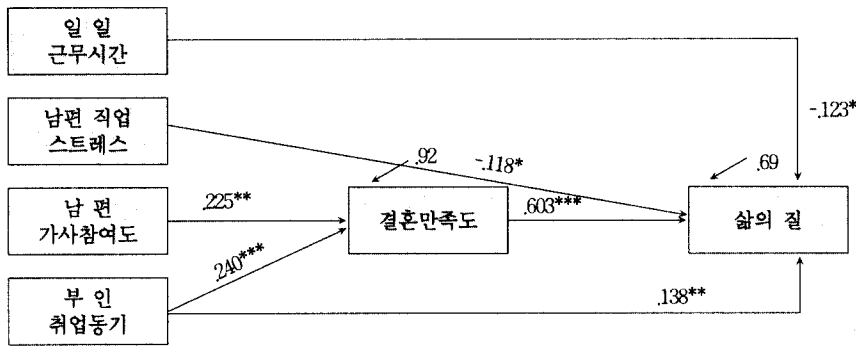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만족도($\beta=.448$), 직업만족도($\beta=.238$), 일일근무시간($\beta=-.127$)이었다. 즉 일일근무시간이 짧을수록,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1.8%였다. 또한 남편의 가사참여도, 남편 직업 스트레스, 직업만족도는 결혼만족도를 통해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남편의 가사참여도와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직업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며 이것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남편이 가사참여를 많이 할수록 남편의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고정자·김갑숙(1996)의 연구와 일치한다. Hirsch & Rapkin(1986)의 연구에서도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변인들이 남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총인과효과 크기를 살펴보면(표 7) 결혼만족도($\beta=.448$)변인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다음은 직업만족도로 직접효과($\beta=.218$)와 간접효과($\beta=.084$)를 합하여 총인과효과 크기는 $\beta=.322$ 였다. 일일근무시간($\beta=.127$)은 직접효과만 있었으며, 그외 남편의 가사참여도

($\beta=.089$)와 남편의 직업스트레스($\beta=-.065$)는 간접효과만 있었다.

〈표 6〉과 〈그림 3〉에 의하면 부인의 경우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가사참여도($\beta=.225$), 부인취업동기($\beta=.240$)였으며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14.9%였다. 즉 남편의 가사조력도가 높고 자아발전을 위하여 취업한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편의 가사조력도가 많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이 높아진다는 이정숙(1990), 김양희 외(1992), 최규련(1993), 김경신·김오남(1996)의 연구와 일치하며, 비경제적인 동기로 취업한 경우가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여러 선행연구(박미령, 1987; 임정빈 외, 1989; 도미향·최외선, 1990; 최규련, 1994; 한경미, 1995)와 일치한다.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만족도($\beta=.603$)가 가장 영향력이 크며 다음은 부인취업동기($\beta=.138$), 일일근무시간($\beta=-.123$), 남편 직업스트레스($\beta=-.118$)였다. 즉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인이 자아발전을 위하여 취업한 경우, 일일근무시간이 짧으며 남편의 직업스트레스가 적은 경우 부인들은 삶의 질 수준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2.2%였다. 또한 남편의 가사조력도와 부인 취업동기는 결혼만족도를 통하여 간접효과를 미치고 있다. 즉 남편이 가사에 협조적이며 부인들이 비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을 할 경우 결혼만족도는 높아지고 이로 인해 삶의 질 수준에 더 만



〈그림 3〉 부인의 인과모형

〈표 7〉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총인과효과

| 변인 | 남편 | | | 부인 | | |
|-----------|--------|--------|--------|--------|--------|-------|
| | 총효과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효과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 남편의 가사참여도 | 0.089 | | 0.089 | 0.058 | | 0.058 |
| 일일근무시간 | -0.127 | -0.127 | | -0.123 | -0.123 | |
| 직업만족도 | 0.322 | 0.238 | 0.084 | | | |
| 남편 직업스트레스 | -0.065 | | -0.065 | -0.118 | -0.118 | |
| 부인취업동기 | | | | 0.283 | 0.138 | 0.145 |
| 결혼만족도 | 0.448 | 0.448 | | 0.603 | 0.603 | |

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고정자·김갑숙(1997)의 연구에서 취업주부들의 경우 남편의 가사참여도는 부인의 삶의 질에 직접영향을 미쳐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으나, 부인의 취업동기가 삶의 질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인의 경우 총인과효과의 크기는 결혼만족도가 $\beta=.603$ 으로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다음은 부인취업동기로 직접효과($\beta=.138$)와 간접효과($\beta=.145$)를 합하여 총 효과는 $\beta=.283$ 이었다. 그리고 일일근무시간은 $\beta=-.121$, 남편의 직업스트레스는 $\beta=-.118$ 로 직접영향만을 미쳤으며 남편가사조력도($\beta=.058$)는 간접영향만 미쳤다.

이상의 연구에서 남편·부인 모두 결혼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 여러 선행연구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Berry & Williams, 1987; 이희정·이숙현, 1995; 박미석, 1996)과 일치하였다.

남편의 경우는 직업만족도가 삶의 질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영향력도 높게 나타나 남편의 경우 생활에 있어 직장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부인의 경우는 직업만족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취업동기가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경우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남편의 직업스트레스 변인도 남편의 경우는 간접적 영향만을 미쳤으나 부인의 경우는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영향력도 남편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남편의 직업스트레스가 아내에게 전이되어 아내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Rook 외(1991)의 연구에서 남편의 직업 스트레스는 부인의 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맞벌이부부의 직업관련변인이 결혼만족도 및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부부 228쌍이었으며, 직업관련변인과 결혼만족도 척도, 삶의 질 척도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분석방법은 t-test, 일원변량분석, 경로분석을 적용시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 수준은 중간수준 이상이었으며, 남편(M=3.41) 부인보다(M=3.29) 결혼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맞벌이부부의 삶의 질 수준은 중간수준이었으며 남편(M=3.08), 부인(M=3.02)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둘째,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경우 남편의 가사참여도,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 직업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부인의 경우는 남편의 가사참여도, 남편의 직업스트레스, 부인의 취업동기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셋째, 부부의 삶의 질은 남편의 경우 남편의 가사참여도, 남편의 지지도, 직업만족도, 남편의 직업스트레스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부인의 경우는 월평균소득, 남편의 가사참여도, 직업만족도, 근무시간, 남편의 직업스트레스, 부인의 취업동기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넷째, 직업관련변수와 결혼만족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남편의 경우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 일일근무시간이었으며, 변인들의 설명력은 41.8%였다. 그의 남편의 가사참여도, 남편의 직업스트레스, 직업만족도는 간접영향을 미쳤다. 부인의 경우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만족도, 부인

취업동기, 일일근무시간, 남편의 직업스트레스였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52.2%였다. 또한 남편의 가사참여도와 부인의 취업동기는 간접효과를 미쳤다.

이상의 결과에서 결혼만족도가 삶의 질에 가장 강력한 변수로 입증되었다. 즉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가 삶의 질 수준에 가장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관련변수는 남편과 부인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부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가정에서는 주부의 취업에 대한 가족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며, 부부가 평등한 역할을 분담하고, 편리한 가정기기를 구입 설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에서는 근로조건 및 직장환경의 개선 등 직업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하며, 또한 기혼취업여성을 위한 출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시간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고보선·임정빈(1992). 가정경제안정도 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1-208.
- 2) 고정자·김갑숙(1996). 가족응집성, 적응성, 스트레스 수준이 맞벌이부부의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65-78.
- 3) 고정자·김갑숙(1997).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삶의 질에 대한 인과모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429-442.
- 4) 공보처(1995). 세계일류로 가는 길 -21세기 삶의 질 지표-.
- 5) 김경신·김오남(1996). 맞벌이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8.

- 6) 김경동 · 이흥구 · 신도철(1983). 한국인의 가치의 식과 삶의 질. 이만갑교수 회갑기념 논총. 461-499.
- 7) 김득성(1989). 결혼만족도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85-94.
- 8) 김양희 · 박충선 · 서동인 · 신화용 · 조병은 · 최규련(1992). 학동기자녀를 둔 맞벌이가족의 가족관계와 정책적 제언. 대한가정학회지 30(3), 285-305.
- 9) 김화자 · 윤종희(199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4.
- 10) 노유자(1988).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1) 도미향 · 최외선(1990).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응과 의사소통양식 및 그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69-86.
- 12) 박미금(1994). 부부의 생활만족도 비교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1), 1-18.
- 13) 박미령(1987). 한국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박미석(1996). 중년기 남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9-34.
- 15) 소연경 · 문숙재(1983). 가정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간호, 43-53.
- 16) 손현숙(1995). 주부의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 공동참여와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47-57.
- 17) 안선영(1987).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갈등과 관련 변인 고찰.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18) 유영주 · 김경신 · 김순옥(1996). 가족관계학. 교문사.
- 19) 이기영(1984).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111-127.
- 20) 이정숙(1990). 기혼여교사의 가정생활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변인분석.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21) 이희정 · 이숙현(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6), 25-41.
- 22) 임정빈 · 이종숙(1989). 확대기 가정부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117-132.
- 23)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24) 최규련(1987). 한국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5) 최규련(1993).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 26) 하재구(1986). 서울시민의 삶의 질의 실태와 시정부의 공공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7) Andrews, F. M. & Withey, S.(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Plenum Press.
- 28) Babara, B. B. & Josephine, M. Z.(1992). Quality of life in dual-career families:Commuting versus single-residence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May), 399-407.
- 29) Berry, R. E. & Williams, F. L.(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A path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Feb.), 107-116.
- 30) Campbell, A., Converse, P., & Rodgers, W(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Russel Sage Foundation.
- 31) Galambos, N. L. & Silbereisen, R. K.(1989). Role strain in West German dual-career househol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1(2), 385-390.
- 32) Glenn, N. D. & Weaver, C. N.(1978). A multivariate, multisurvey study of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0(2), 269-281.
- 33) Hadaway, C.K.(1978). Life satisfaction and religion : An analysis. *Social Forces* 57. 636-643.
- 34) Hayes, M. P. & Stinnett, N. (1971).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husbands and wives.

- Journal of Home Economics* 63(9), 669-674.
- 35) Joe, F. Pittman, Sally, A. Lloyd(1988). Quality of family life, social support, and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0, 53-67.
- 36) Karen Rook, David Dooley, & Ralph Catalano(1991). Stress Transmission: The effects of husbands' job stressors on the emotional health of their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Feb.), 165-177.
- 37) Liu, B.(1975). Quality of life : Concept, measure and results.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34(1), 1-13.
- 38) Olson, D. H. & Barenes, H.(1982). *Family Inventory of Quality of Life*.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Minnesota.
- 39) Palmore, E. & Luikart, C.(1972). Health and social factor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3, 68-80.
- 40) Pleck, J. H.(1985). Working wives/working husbands. Sage Publications.
- 41) Rice, A. S. & Tucker, S. M.(1986). *Family life managemen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 42) Spreitzer, E. & Snyder, E.E.(1974).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29, 454-458.
- 43) Thomas, S., Albrecht, K. & White, P.(1984). The determinants of marital quality in dual career couples. *Family Relations* 33(4), 513-522.
- 44) Vannoy, D. & Philliber, W.(1992). Wife's employment and quality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2), 387-398.